

2020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조사: 아시아 태평양

소비자의 관심이 첨단 자동차 기술로 옮겨가고 있는가?

김태환 상무 딜로이트 컨설팅



들어가며

금년 초부터 전세계를 강타한 COVID-19의 여파로 자동차 산업은 유례없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생산량, 판매량, 수익성 전반에서 경영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고, COVID-19 장기화에 따른 이동 감소로 모빌리티 서비스 및 관련 기술 시장 축소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수 년간 지속되어 오던 커넥티비티, 전동화, EV 등에 대한 투자 증가세도 주춤해 지고 있다. 최근 델로이트 컨설팅이 전세계 20개국 35,000여 명(아시아태평양 지역 1만 7천여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연구 결과, 소비자들은 본격적인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보적인 사용 의사를 보이고 있다.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등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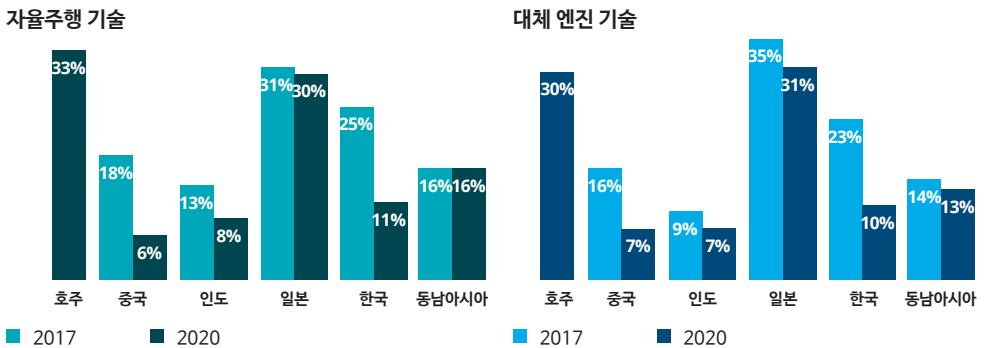
대해서는 각 국가 별 소비자의 관심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기차(EV)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증가세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기조의 지속세가 관찰되고 있다.

첨단 자동차 기술에 대한 OEM의 지출에도 소비자의 지불 의사는 여전히 저조

첨단 자동차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 의사는 전동화 기술, 안전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에서는 커넥티비티, 인포테인먼트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저조한 지불 의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자율주행 기술/대체 엔진 기술에 추가 지불하지 않겠다는 소비자 비율



주: 호주는 2017년 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음

질문 7. 제시된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본인의 요구와 필요에 부합하는 차량에 얼마나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

표본 크기 (2020/2017): 호주=1,253/NA; 중국=3,019/1,738; 인도=3,022/1,739; 일본=3,056/1,745; 한국=3,013/1,708; 동남아시아=3,827/1,503

차량 연결성 확대에 따른 이로움과 동시에 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 공존

차량 연결성 확대가 이로움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의 비율은 중국과 인도에서 안전 개선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과 호주, 한국의 경우 이에 비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러나 연결성 확대에 따라 수집되는 정보에 대한 보안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며, 커넥티드카 확산에 따라 수집되는 정보의 관리 주체에 대해 OEM의 역할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보는 일본, 동남아시아 등 국가에서 커넥티드카에 대한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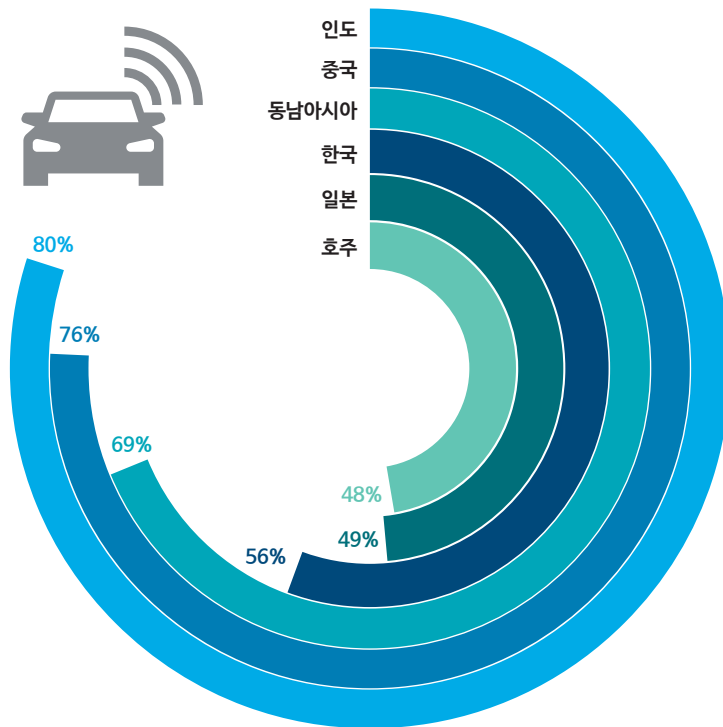
첨단 기술이 적용된 차량에 500달러* 이상 지불할 의사가 없는 소비자의 비율

첨단 기술 범주	호주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안전성	66%	39%	49%	59%	52%	62%
연결성	70%	46%	52%	72%	63%	67%
인포테인먼트	79%	52%	57%	79%	74%	76%
자율주행	60%	37%	40%	61%	42%	55%
대체 엔진 솔루션	57%	37%	39%	60%	42%	54%
~보다 많이 지불할 의사 없음	A\$750	¥2,500	₹25,000	¥50,000	₩500,000	IDR 5 million MYR 2,000 THB 15,000

주: 국가별 현지 시장 통화로 계산됨 (500달러 상당)
 질문 7. 제시된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본인의 요구와 필요에 부합하는 차량에 얼마나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
 표본 크기 (2020): 호주=1,253; 중국=3,019; 인도=3,022; 일본=3,056; 한국=3,013; 동남아시아=3,826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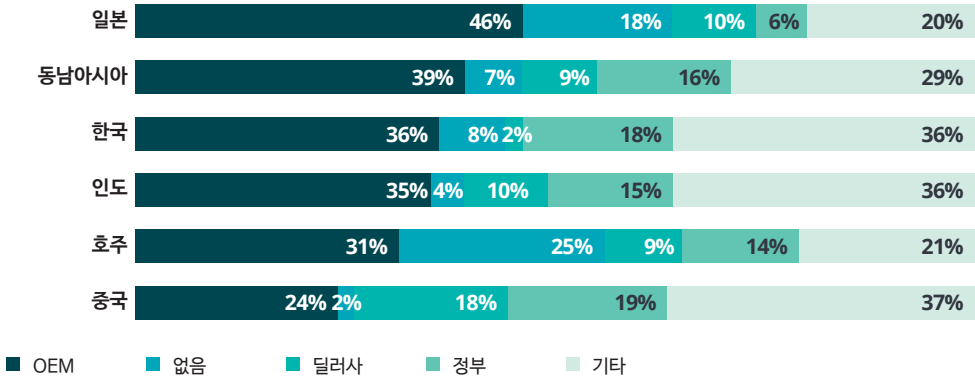
차량 연결성 확대가 이로울 것이라고 여기는 소비자의 비율



주: 매우 동의 또는 동의한다는 응답자를 합산하여 비율을 도출했으며, '무응답/모름' 응답은 고려하지 않음.
 질문 3. 미래 차 기술에 관한 다음의 설명에 얼마나 동의하는가?
 표본 크기: 호주=1,206; 중국=2,980; 인도=2,979; 일본=2,912; 한국=2,974; 동남아시아=3,752

그림 4

커넥티드카로부터 생성 및 공유되는 데이터의 가장 신뢰할 만한 관리 주체 유형 관련 소비자 선호도



주: '기타' 카테고리에는 금융 서비스 기업, 보험사, 통신사 및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포함됨
 질문 36. 본인이 커넥티드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 중 커넥티드카에서 생성 및 공유되는 데이터의 관리 주체로 가장 신뢰할 만한 집단은 무엇입니까?
 표본 크기: 호주=1,253; 중국=3,019; 인도=3,022; 일본=3,056; 한국=3,013; 동남아시아=3,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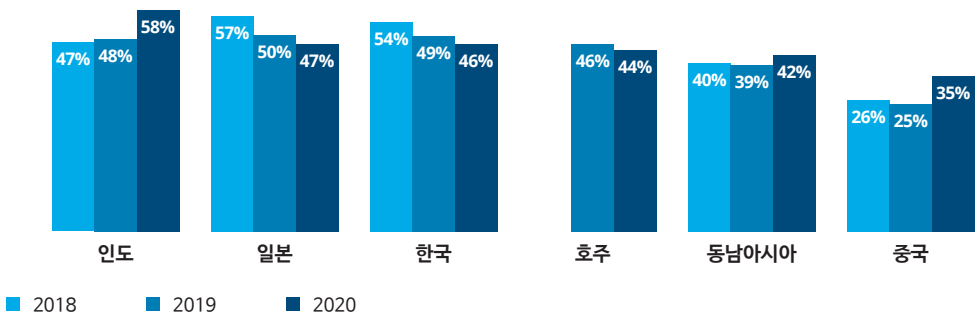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국가에서 최근 3년 간 완만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도와 중국의 경우 타 국가와 달리 우려를 보이는 응

답자가 이전보다 증가하고 있다,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는 자율주행차량 사고 뉴스 등이 소비자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한국과 인도 소비자의 경우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5

자율주행차가 안전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는 소비자 비율



주: 매우 동의 또는 동의한다는 응답자를 합산하여 비율을 도출했으며, '무응답/모름' 응답은 고려하지 않음. 호주는 2018년 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음
 질문 3. 미래 차 기술에 관한 다음의 설명에 얼마나 동의하는가?
 표본 크기: 호주=1,222 [2020], 1,230 [2019], NA [2018]; 중국=2,988 [2020], 1,735 [2019], 1,724 [2018]; 인도=2,945 [2020], 1,725 [2019], 1,273 [2018]; 일본=2,976 [2020], 1,717 [2019], 1,680 [2018]; 한국=2,999 [2020], 1,715 [2019], 1,722 [2018]; 동남아시아=3,773 [2020], 1,498 [2019], 1,508 [2018]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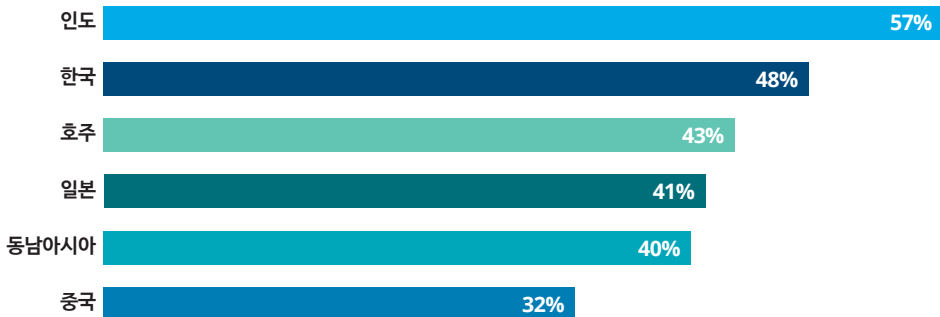
자율주행차 사고 관련 언론 보도로 인해 자율주행 기술 사용에 더욱 조심스러워졌다고 생각하는 소비자 비율



주: 매우 동의 또는 동의한다는 응답자를 합산하여 비율을 도출했으며, '무응답/모름' 응답은 고려하지 않음
 질문 3. 미래 차 기술에 관한 다음의 설명에 얼마나 동의하는가?
 표본 크기: 호주=1,213; 중국=2,996; 인도=2,935; 일본=2,998; 한국=2,984; 동남아시아=3,759

그림 7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범 운행 하는 것에 대해 다소/매우 우려하는 소비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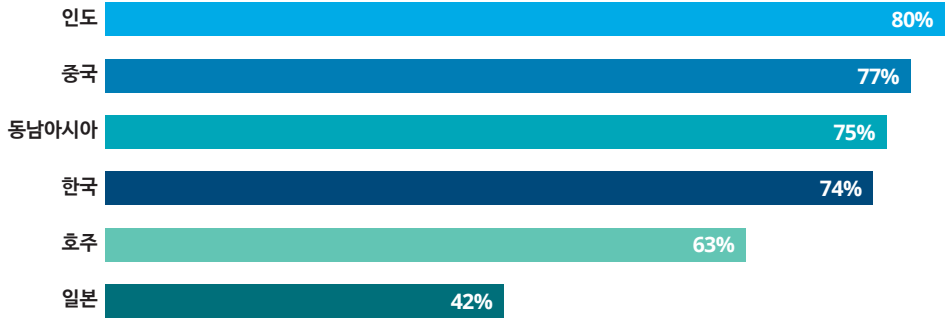
주: '다소 우려됨' 또는 '매우 우려됨'으로 답한 응답자를 합산하여 도출한 비율임
 질문 4. 다음의 상황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계십니까?
 표본 크기: 호주=1,253; 중국=3,019; 인도=3,022; 일본=3,056; 한국=3,013; 동남아시아=3,826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 유보적 자세를 보이는 국가들일수록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 검증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높게 기대하고 있으며, 온전한 안전성을 확보한 자율주행 차량을 누가 만

들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회사 등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전통적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신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8

정부의 안전성 인증이 있으면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소비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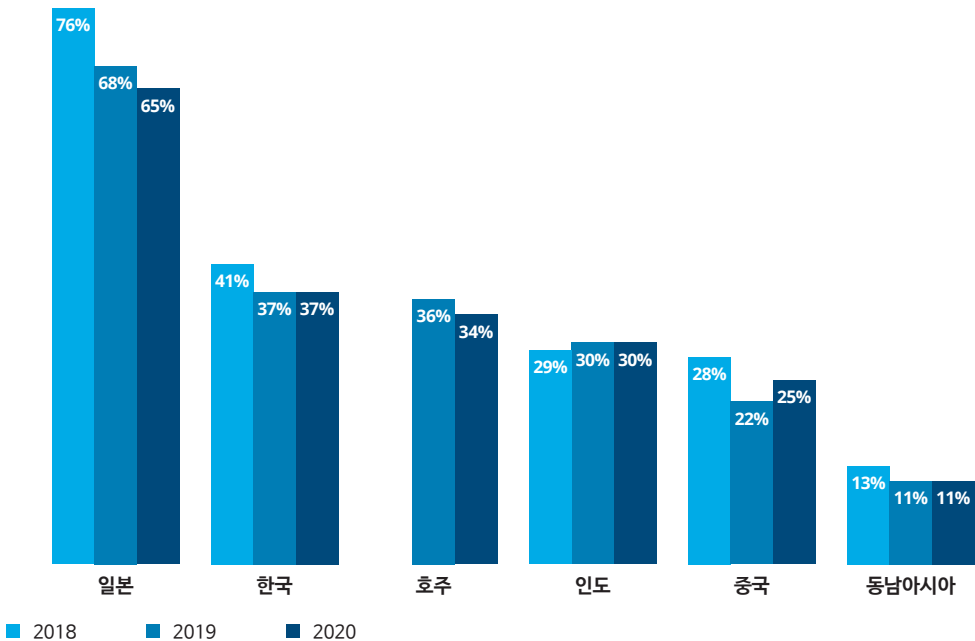


주: '다소 그러함' 또는 '상당히 그러함'으로 답한 응답자를 합산했으며, '모름'은 고려하지 않음
질문 5. 미래 차 기술에 관한 다음의 설명에 얼마나 동의하는가?

표본 크기: 호주=1,213; 중국=2,991; 인도=2,971; 일본=2,987; 한국=2,978; 동남아시아=3,696

그림 9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시장 출시에 있어 기존 자동차 제조사를 가장 신뢰한다는 소비자 비율



주: 호주는 2018년 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음

질문 6. 다음 중 완전 자율주행(무인)차 기술을 시장에 출시하는 주체로서 가장 신뢰하는 회사 유형은 무엇인가?

표본 크기: 호주=1,253 [2020], 1,252 [2019], NA [2018]; 중국=3,019 [2020], 1,760 [2019], 1,759 [2018]; 인도=3,022 [2020], 1,755 [2019], 1,761 [2018]; 일본=3,056 [2020], 1,770 [2019], 1,762 [2018]; 한국=3,013 [2020], 1,731 [2019], 1,763 [2018]; 동남아시아=3,826 [2020], 1,517 [2019], 1,523 [2018]

교통 정체 해결, 자가 운전 대비 편의성 등으로 모빌리티 서비스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장세

대부분 국가에서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다양한 이동 수단의 조합(Multi-modal Mobility)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고, 주차 문제 해결, 이동 중 다양한 업무 처리, 자가 운전 대비 저렴한 비용 등에 따라 우버, 디디추싱과 같은 승차 호출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의 사용은 아직도 주류 진입 이전 단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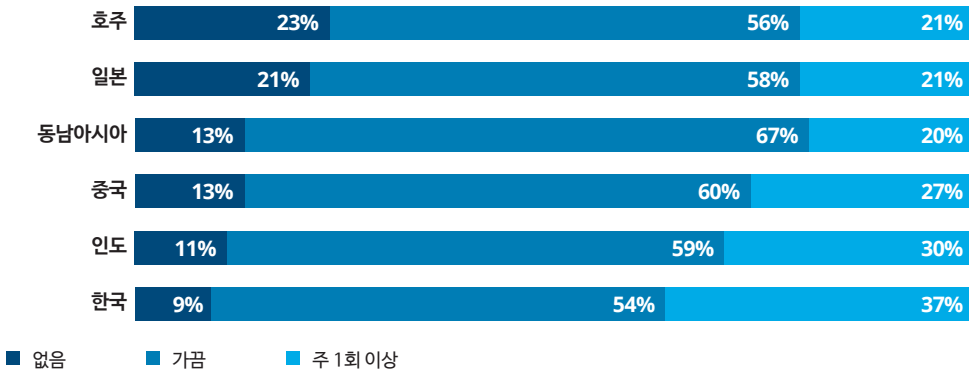
그림 10
교통 혼잡을 줄이는 방안

	호주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통행료/교통혼잡부담금	8%	7%	15%	16%	7%	10%
높은 급행차로 비중	20%	14%	21%	8%	9%	11%
대중교통 접근성 확대	41%	41%	22%	46%	52%	42%
V2V(차량간) 커넥티비티	10%	20%	21%	10%	15%	13%
자동차 사용 제한 규제	9%	12%	14%	15%	13%	18%
탄소 저배출/무배출 구역 설정	5%	6%	6%	3%	3%	5%
기타	7%	0%	1%	2%	1%	1%

■ Top option

질문 43. 교통 혼잡을 줄이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본 크기: 호주=1,253; 중국=3,019; 인도=3,022; 일본=3,056; 한국=3,013; 동남아시아=3,826

그림 11
같은 경로로 이동하기 위해 여러 이동 수단을 사용하는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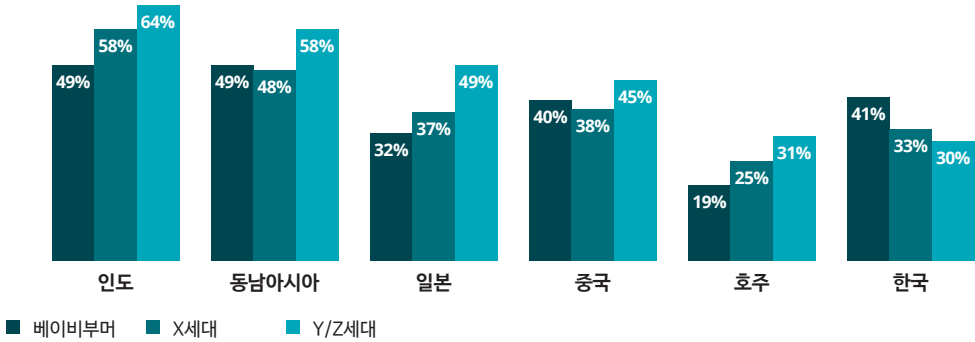
질문 39. 같은 경로로 이동 시 얼마나 자주 여러가지 이동 수단을 사용하십니까? (예: 전철, 통근열차, 자차 등을 활용한 이동)
표본 크기: 호주=1,253; 중국=3,019; 인도=3,022; 일본=3,056; 한국=3,013; 동남아시아=3,826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대부분의 국가에서 젊은 층 일수록 자동차를 소유하기보다는 모빌리티 서비스 이

용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호주와 한국은 다른 국가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12

세대별 승차 호출 사용자 중 자동차 소유에 대해 회의적인 소비자 비율



전 세대 평균					
인도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	호주	한국
61%	54%	42%	43%	27%	33%

질문 42. 승차 호출 서비스 사용으로 인해 미래에 자동차를 소유해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표본 크기: 호주=베이비부머(169), X세대(121), Y/Z세대(448); 중국=베이비부머(329), X세대(394), Y/Z세대(1,834); 인도=베이비부머(342), X세대(423), Y/Z세대(1,905); 일본=베이비부머(180), X세대(115), Y/Z세대(332); 한국=베이비부머(354), X세대(536), Y/Z세대(1,002); 동남아시아=베이비부머(539), X세대(657), Y/Z세대(1,8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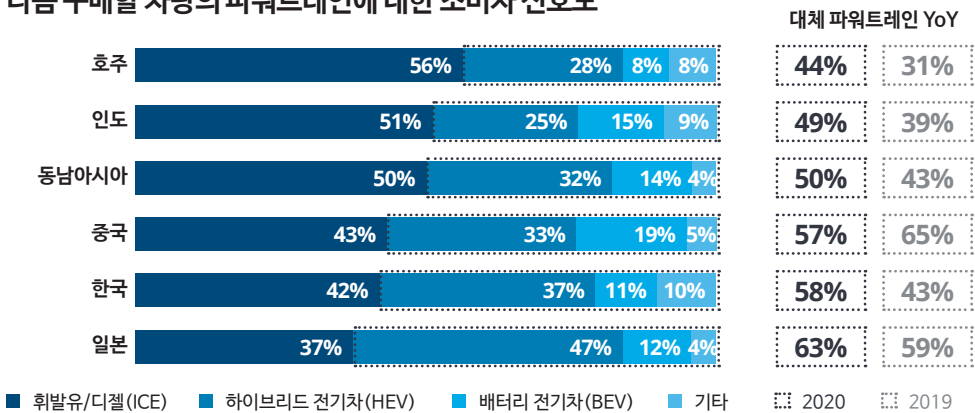
환경 인식과 경제성에 따른 전기차 선호와 함께, 운행 편리성에 대한 우려 공존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에 대한 수용도는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에 따라 대부분 시장에서 공히 높게 나타

나고 있다. 특히 유가가 상승할 경우 전기차의 구매의향이 높아지듯이, 낮은 운영 비용이 전기차를 선택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다.

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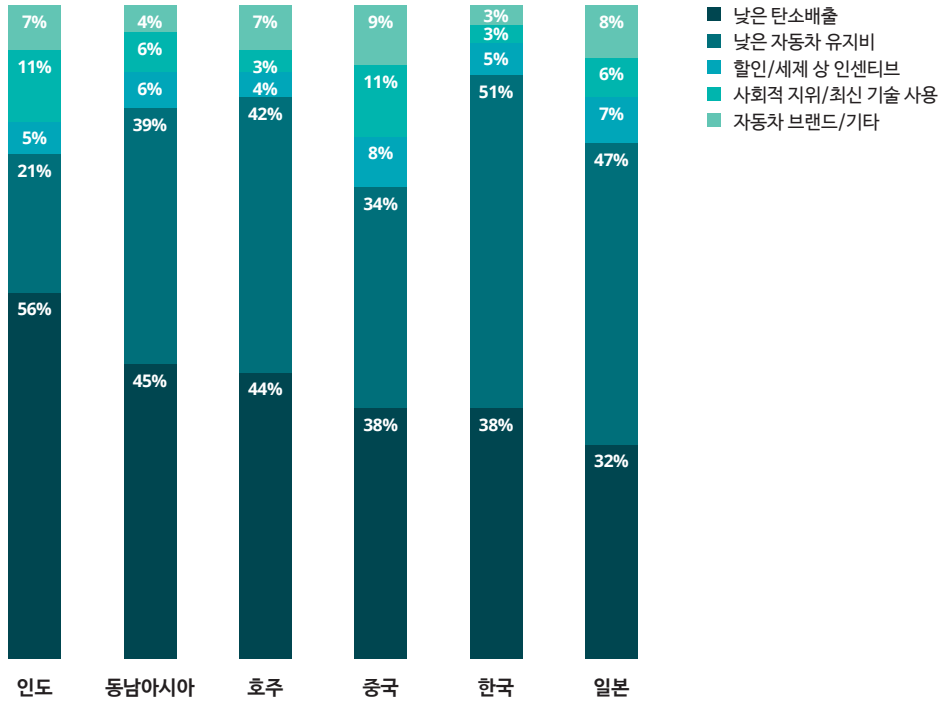
다음 구매할 차량의 파워트레인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주: '기타' 범주는 에탄올과 압축 천연가스, 수소연료전지를 포함
 질문 52. 다음 차량으로 선호하는 엔진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표본 크기: 호주=1,021; 중국=2,557; 인도=2,669; 일본=1,714; 한국=2,711; 동남아시아=3,240

그림 14

다음 구입할 차량으로 하이브리드 전기차 또는 배터리 전기차를 고려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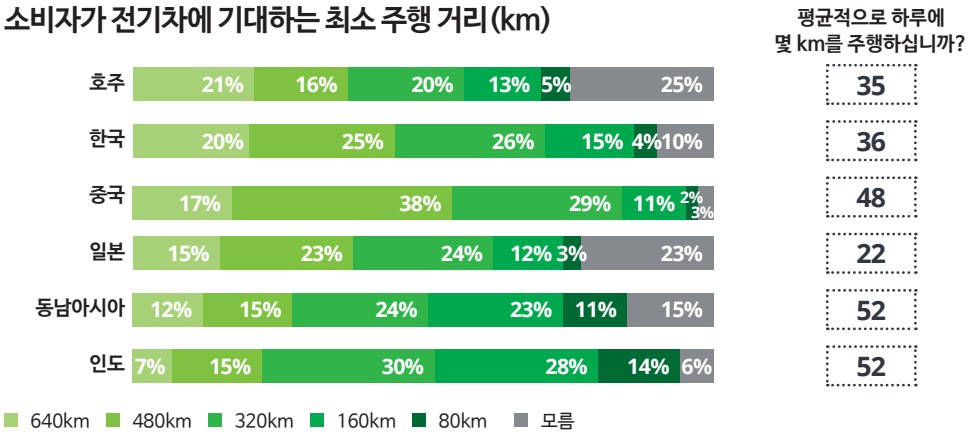


질문 54.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본 크기: 호주=364; 중국=1,345; 인도=1,060; 일본=998; 한국=1,311; 동남아시아=1,484

그러나 소비자들은 1회 충전 후 운행 가능 거리, 충전의 편리성 등에 대해 아직 우려하고 있으며, 자동차 제조업체와 정부 주도로 충분한 충전 인프라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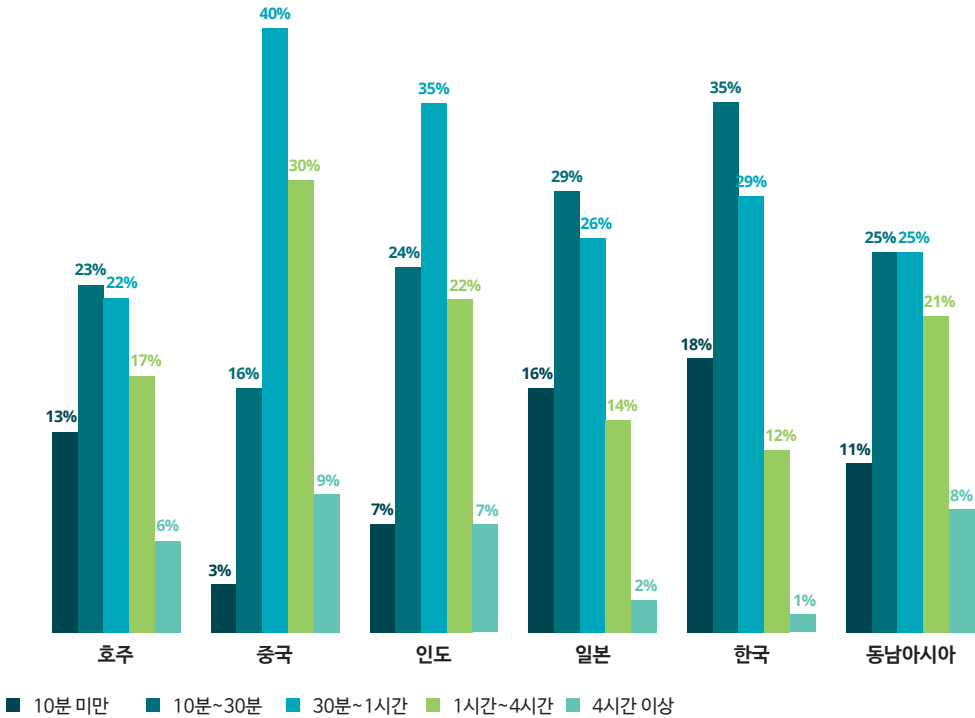
소비자가 전기차에 기대하는 최소 주행 거리(km)



질문 27. 완전 배터리 전기차(BEV)가 한 번의 충전으로 주행해야 하는 최소 주행 거리는 몇 km라고 생각하십니까?
 표본 크기: 호주=1,253; 중국=3,019; 인도=3,022; 일본=3,056; 한국=3,013; 동남아시아=3,826

그림 16

소비자가 배터리 전기차(BEV) 완전 충전까지 기다릴 용의가 있는 시간



주: '모름' 비율을 위 그래프에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합계가 100%가 아닐 수 있음
 질문 28. 배터리 전기차 완전 충전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본 크기: 호주=1,253; 중국=3,019; 인도=3,022; 일본=3,056; 한국=3,013; 동남아시아=3,826

자동차 업계의 명백한 변화 방향과 현실적 과제

2010년부터 매년 진행된 딜로이트의 자동차 산업 소비자 서베이는 최근 10년 간 전기차,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중심으로 자동차 업계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태도로의 전환과 함께 나타나는 편의성에 대한 의문, 자율주행 차량의 편리성에 공감 하면서도 아직 존재하는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 여전히 세대 간 차이를 보이는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태도는 자동차 업계의 큰 변화 방향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재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상기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자동차 업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요구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시사점을 파악하고, 변화하는 자동차 업계의 중심에 있는 다양한 시장 참가자, 즉 완성차 제조업, 자동차 부품업, 모빌리티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정부 및 규제 기관 모두에게 향후의 변화 방향과 실무적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ontact

김태환 상무
 딜로이트 컨설팅
 taehwankim@deloitte.com